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노고단  
(길상봉)

노고단은 아름답고 슬픈 역사를 가진 지리산을 대표하는 주봉 중의 하나이다. 비록 해발고도는 1507m로 지리산에서는 그다지 높은 편에 속하지는 않지만 봄에 철쭉, 여름 원추리, 겨울의 눈꽃 그리고 지리10경 중 노고운해로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예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거나 제를 올린 곳이었고,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없는 특이한 아고산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옛날 신라시대 화랑들의 심신 수련장으로 이용 되었고, 1920년대에는 외국선교사들이 찾아와 별장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별장의 수는 50여동에 이르렀고, 구례지방에서 조선인 인부들을 선교사들을 가마에 태워 이곳 별장까지 오르내렸다 하니 당시의 서글픈 시대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 이후 별장들은 1948년 여순사건이 발발하면서 반란군들의 근거지로 이용됐다가 국군 토벌대에 의해 점령 되었으나 이후 빨치산의 거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 불태워져 지금은 옛 건물의 흔적만 남아 아팠던 근대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선교사 별장터



노고단 일대 옛 모습

노고단 대피소에서 취사장 옆 탐방로를 따라 380m를 올라가다 보면 숨이 차서 한 두 번씩은 쉬게 된다. 숨을 고르고 도착한 곳은 노고단 고개이다. 좌측에 동글동글한 돌탑이 쌓여져 있고 정면에는 반야봉이 우뚝 솟아 있다. 우측에는 조금만한 탐방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그 곳에는 노고단 정상 자연해설을 해 주시는 자연환경안내원들이 있어 혹시 산행을 하다가, 노고단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가차 없이 물음을 던져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길상봉(吉祥峰)이라고 불렀던 노고단은 늙을 노(老), 시어머니 고(姑), 제단 단(壇)를 써서 신라시대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인 선도성모를 지리산의 산신으로 받들고 나라의 수호신으로 모셔 매년 봄과 가을에 제사를 올리던 곳으로 전해진다. 제사는 현재 대피소부근에 선도성모의 사당인 남악사를 세워 올렸는데 지금은 화엄사 앞으로 옮겨와 구례군민들이 해마다 곡우절을 기해 약수제와 함께 산신제를 올리고 있다. 남악사의 유래는 삼국사기에 기록으로 남아 있다.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노고단  
(길상봉)

옛날 노고단 정상은 1920년대 외국인선교사 별장이 지어지면서 대규모 훼손이 시작되었고, 1970년대 국사시설과 통신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차량통행 불법굴취, 산불, 나지확대 등이 발생하였고, 1988년 천은사-반선간 지방도로가 개설되었고, 탐방객들의 수가 급증 했을 뿐만 아니라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자연훼손 행위로 인해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자 정상 일대의 식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정상의 약 80%이상이 풀 한포기 자라지 않는 맨땅이 되어 버렸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1991년에 노고단 정상일대를 자연휴식년제로 지정을 하고 탐방객들의 출입을 막았다. 그 이후 1994년 훼손된 자연을 좀 더 빨리 복원코자 노고단 정상 일대에 인공적인 복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복구사업은 1997년도 말에 완공되었고, 등산로 정비, 토양침식 방지공, 식생복원 등의 주 사업 내용이었다.



공사모습



공사 완료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노고단  
(길상봉)

지금의 노고단 정상은 예전에 비해 많이 복원되었지만 부분적으로 아직도 훼손된 구간의 복원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노고단 정상은 2026년까지 자연휴식년제 구간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정상 탐방 시 주의할 것들이 있다. 입구에서부터 노고단 정상까지 이어진 탐방로(목재데크)를 벗어나는 일은 또 다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 탐방로를 벗어나서 사진을 찍는 다는지 야생화를 꺾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상에서의 음식섭취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금지 되고 있다. 음식물을 먹다보면 주변에 흘린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정상은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오는 공공장소이다. 공공장소의 에티켓을 지켜주는 탐방문화가 됐으면 한다.



노고단 운해



노고단 설경

노고단 정상에 오르다 보면 주변에 피워 있는 야생화에 빠져들 것이다. 정상의 야생화들은 습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야생화들이 대부분이다.

정상은 안개가 많이 끼어 일조량이 적고, 바람이 많이 불고 또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다. 해발 1,500~2,500m에 위치하고 이런 기후 조건들이 충족되면 주변에는 큰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고 작은 관목류의 나무들과 초본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상의 식물들은 산철쭉, 털진달래, 구상나무 등과 각가지 야생화(초본류)들이 자리 잡고 있다.

구간별로 안내판이 자리 잡고 있다. 처음에는 노고단 훼손지 복원공법을 소개한 안내판, 군부대 안내판, 자랑스러운 우리 구상나무, 섬진강, 지리산 봉우리 등의 안내판이 자리 잡고 있으니 탐방시 살펴보면서 걸어 보는 것이 좋겠다.

정상에 도착하면 노고단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는 표주석이 나올 것이다. 그 옆에는 노고단의 상징물인 돌탑이 우뚝하니 서 있다. 돌탑은 1962년도에 청학동에서 단군을 숭배하시는 단신교인들의 100일간의 정성으로 세워졌다고 한다. 이 정성이 이어져 내려와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노고단  
(길상봉)



표지석



정상 돌탑

봉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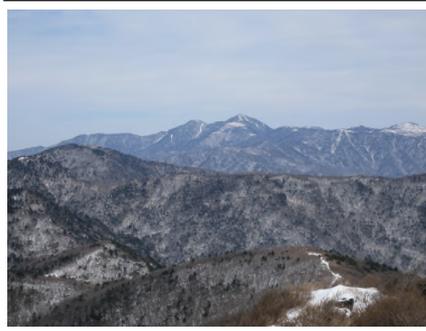
지리산  
국립  
공원

노고단  
(길상봉)

지금의 노고단의 상징물이 되었다.

노고단에서 바라보는 각가지 지리산의 봉우리와 운해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이만한 경치와 운치를 느끼는 곳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일은 실수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일 뿐이다.”



노고단에서 바라본 천왕봉



노고단에서 바라본 남해

국립공원30년사 1988.

2008 지리산남부 노고단 훼손지 복구공사 실시설계 2008.

국립공원 탐방로 훼손·세굴유형 분석과 복원대책에 관한 연구 2001.

특별보호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2007.

※사진참조 -

지리산남부 노고단 자연관찰로 정비공사 사진대지 2004

- 노고단에서 삼도봉에 이르는 능선에서 볼 수 있는 식물  
 노고단~돼지령 : 개불알꽃, 그늘돌쩌귀, 죽대, 미역취, 산오이풀, 큰앵초, 검정겨이삭 등  
 통신소 주변, 임결령, 삼도봉 주위 : 동자꽃, 세잎돌쩌귀, 마주송이풀, 산쥐손이, 이질풀, 골병꽃, 애기병꽃, 마타리, 쥐오줌풀, 산구절초, 고려엉겅퀴, 산골취, 점박이천남성, 큰애기나리, 통통굴레, 단풍마, 왕버들, 미나리아재비, 털장대, 뿔장대, 맥도딸기, 팔배나무, 자귀나무, 참싸리, 도둑놈의갈고리, 대팻집나무, 좀чат빗살나무, 버늘회나무, 넓은고로실나무, 담쟁이덩굴, 채고추나물, 산딸나무, 층층나무, 곰의말채, 산앵도나무, 노린재나무, 왕쥐똥나무, 방아풀, 알며느밥풀, 질경이 갈퀴덩굴, 둥근갈퀴, 병꽃나무, 산비장이, 민들레, 산씀바귀, 두메고들빼기, 까치고들빼기 등



동자꽃



지리터리풀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피아골

삼거리

“피아골”은 지리산의 관문인 노고단의 등넘어 섬진강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동남쪽으로 깊이 빠져나간 큰 계곡이다. 한국전쟁 직후 “피아골”이란 영화작품이 나왔던 탓으로 흔히들 한국전쟁 때 이곳에서 동족상잔의 피를 많이 흘려 피아골이라 부르게 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오랜 옛날부터 불려 내려오는 유서 깊은 이름이다. 그 어원을 살펴보면 옛날에 속세를 버리고 한적한 이곳 선경(仙境)을 찾은 선객(仙客)들이 이곳에 고대 오곡중의 하나인 피를 많이 가꾸었던 연고로 자연히 피밭골이라 부르게 된 것이 그 후 점차 그 발음이 피아골로 전환된 것이라 한다.



피밭



피아골삼거리

관광특구 구례, 지리산(김명수지음)

## 봉우리

## 지리산

## 국립

## 공원

## 피아골

## 삼거리

피아골은 그 강령한 어감만큼이나 널리 알려진 지리산의 대표적인 계곡 중 하나이다. 직전마을에서 주능선까지 8km의 피아골 협곡길은 활엽수림들로 뽕뽕이 가득 차 있어 그야말로 원시림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 피아골은 질푸른 녹음 속에서 맑은 계류와 벗하며 오르는 여름철 피서 산행 코스로서 가장 이상적이다. 또한 가을철의 단풍은 피아골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이다. 피아골의 등산로는 직전마을에서 시작하여 피아골산장까지 약 4km는 비교적 수월하게 계곡을 따라 잘 나 있다. 피아골산장에서 주능선으로 올라붙는 길은 모두 네군데가 있는데 질매재, 임걸령삼거리, 임걸령, 삼도봉으로 오르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 그중에서 삼도봉으로 이어진 길은 피아골의 본류를 타고 비교적 완만하게 오르는데, 피아골 깊은 계곡의 원시림과 태곳적 분위기가 한껏 느껴지는 한적한 오솔길이다. 그 외 나머지 세 개의 길은 삼도봉으로 오르는 길에 비해 거리는 짧지만 다소 투박하고 경사가 심하다. 피아골삼거리에서 산길은 왼쪽 노고단 방향과 오른쪽 임걸령 방향으로 각각 갈라진다. 먼저 질매재를 거쳐 노고단으로 오르려면 피아골산장 왼쪽 음수대가 있는 곳으로 해서 올라야 한다. 질매재까지의 2km 너덜길은 가파르기로 이름 높은 돌밭길이다. 때문에 발목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은 듯 산죽으로 문힌 곳도 많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아울러 문수대까지는 식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피아골산장의 왼쪽 계곡에서 식수를 충분히 보충하고 올라야 한다.

관광특구 구례, 지리산(김명수지음)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임걸령

임걸령은 노고단에서 반야봉으로 이어지는 3.2km거리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1,432m의 높은 고준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뚝 솟은 반야봉이 북풍을 막아주고 노고단의 능선이 동남풍을 가려주어 산속 깊이 자리한 아늑하고 조용한 천혜의 요지이며 샘에서는 언제나 차가운 물이 솟고 물맛 또한 좋기로 유명하다. 이곳은 옛날에 의적이나 도적들의 은거지였던 곳으로 유명하며 특히 의적 임걸(林傑)의 본거지였다 하여 임걸령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 샘터에서 피아골쪽 암벽 밑에 막(幕)터가 있는데 이곳을 ‘황(黃)호랑이 막 터’라고 부른다. 옛날 약초를 캐는 황장사가 눈 내리는 겨울 밤 이곳에서 천막을 치고 자다가 호랑이를 잡았다는 전설이 있다. 임걸령에서 반야봉을 향해 가파른 능선을 한동안 오르다 보면 평지가 나오고 다시 오르막길을 오르면 약 2km지점에 노루목 삼거리가 나온다. 노루목은 반야봉에서 내려지르는 산줄기가 산중턱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마치 노루가 머리를 치켜들고 피아골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천연의 암두가 전망대를 이루고 있어 부르게 된 이름이다. 해발 1,500m의 노루목 암두에서 피아골을 내려 보노라면 원시림속의 정취를 맘껏 느낄 수 있다.



임걸령 샘

관광특구 구례, 지리산(김명수지음)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노루목

노루목은 반야봉에서 내려지르는 산줄기가 산중턱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마치 노루가 머리를 치켜들고 피아골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천연의 암두가 전망대를 이루고 있어 부르게 된 이름이다. 해발 1,500m의 노루목 암두에서 피아골을 내려 보노라면 원시림속의 정취를 맘껏 느낄 수 있다.



노루목이정표

관광특구 구례, 지리산(김명수지음)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덕평봉

벽소령대피소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높은 봉우리가 덕평봉이다. 종주능선 탐방로가 덕평봉 정상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머리서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대신 덕평봉 아래에서 연중 달콤한 샘물을 쏟아내는 선비샘을 지나가게 된다.



덕평봉



벽소령대피소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만복대

지리산 서북릉 해발 1433m에 위치한 만복대 일원은 남원시 산내면과 구례군 산동면에 걸쳐 억새로 뒤 덮혀 있어 주변의 단풍과는 다른 가을 색 풍경을 보여준다. 노고단, 반야봉, 천왕봉으로 이어지는 지리산의 주능선이 한눈에 들어올 만큼 조망이 빼어나다.



만복대 억새군락

만복대 주능선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명선봉

해발 1586m인 명선봉은 남원시 산내면과 경남 하동군 화개면, 함양군 마천면의 경계지점이다. 평퍼짐한 구릉같은 정상 일대는 온갖 야생화들이 만발해 있으며 이곳에서의 조망은 지리산 그 어느곳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시원하게 뻗어내린 남부능선은 물론 멀리 백운산, 왕시루봉이 한눈에 들어온다. 빨치산의 최후 거점인 빗점골과 대성골이 발아래로 굽어보인다.



명선봉 운무



명선봉 운무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바래봉

바래봉은 스님들의 밥그릇인 바리때를 얹어놓은 모습과 닮아 그렇게 붙여졌다고 한다. 둥그스름하고 순한 산릉인데다가 1000m 이상의 고산초원지대인 바래봉에서 팔랑치 구간에서 균락을 이룬 산철쭉이 4~5월에 붉게 피면 산 능선이 온통 불꽃이 타오르듯 붉은 철쭉꽃의 향연이다. 바래봉 산철쭉의 백미는 정상에서 약 1.5km 거리의 팔랑치 구간이다. 바래봉 정상은 지리산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손꼽힌다. 동쪽의 천왕봉에서 서쪽의 노고단에 이르는 지리산 주능선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전개되고 굽이치는 암봉이 공룡등을 연상케 한다.



바래봉



바래봉 철쭉

지리산국립공원탐방안내서\_지리산관리사무소장 송인순\_2003

## 봉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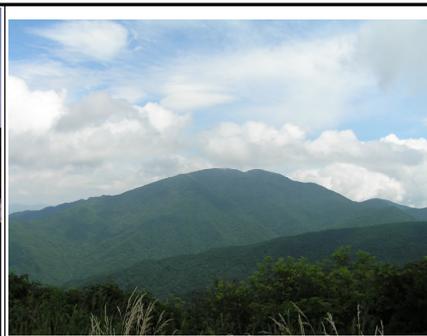
지리산  
국립  
공원

## 반야봉

반야봉(1732m)은 그 높이와 관계없이 지리산의 제2봉이며 지리산을 상징하는 대표적 봉우리이다. 지리산 어느 곳을 가던 우뚝 솟아 있는 두 봉우리를 볼 수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나 대개 여인의 엉덩이와 흡사하다는데 공감한다. 주봉(1,732m)과 중봉이 절묘하게 빚어낸 지리산의 대표적인 봉우리답게 노고단은 물론 멀리 천왕봉에서도 선명하게 조망돼 그 독특한 모습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많이 한다. 그 누가 보아도 두 봉우리의 정다운 모습을 보면 금방 지리산 사진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반야봉은 또한 신비로운 낙조(落照)의 장관을 연출해 내는 지리산 10경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여름날 작열하던 태양이 지루한 하루를 보내고 저편 너머로 숨어들 무렵이면 반야의 하늘은 온통 진홍빛으로 물들어 보는 이들을 감동케 한다. 지리산이 그토록 아름다울 수가 있는지를 끝없이 되뇌여 보아도 반야봉의 낙조는 모자람이 없다. 화려한 불꽃잔치와 더불어 반야봉은 운해와 함께 우리에게 인식된다. 늘 발아래 운해를 거느리고 우뚝 솟아 있는 반야봉의 장관은 비경 그 자체이다.



반야봉운해



반야봉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반야봉

태산준령들 사이사이에 걸려있는 지리산의 운해는 아마도 주봉인 천왕봉과 반야봉에 얽힌 마고할미와 반야의 애뜻한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려는 듯 심오함을 갖고 있다. 반야봉에는 지리산 산신중 女神인 천왕봉의 마고할미와 관련된 전설이 있다. 그 여신은 선도성모(仙桃聖母) 또는 마고(麻古)할미, 노고(老姑)라 불리는데 바로 천신(天神)의 딸이다. 그 천신의 딸인 마고할미는 지리산에서 불도를 닦고 있던 도사 반야(般若)를 만나 결혼해 천왕봉에서 살았다. 그들은 딸만 8명을 낳았다. 그러던 중 반야는 더 많은 깨우침을 얻기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반야봉으로 떠났다. 그리고 마고할미가 백발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마고할미는 반야봉에서 깨우침을 얻기 위해 외로이 수도하는 남편 반야를 그리며 나무껍질을 벗겨 남편이 입을 옷을 만든다. 그리고 마고할미는 딸들을 한명씩 전국 팔도에 내려 보내고 홀로 남편을 기다린다. 기다림에 지친 마고할미는 끝내 남편 반야를 위해 만들었던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뒤 숨지고 만다. 갈기갈기 찢겨진 옷이 바람에 날리어 반야봉으로 날아가니 바로 반야봉의 풍란이 되었다고 전한다. 후세 사람들은 반야가 불도를 닦던 봉우리를 반야봉이라 불렀고 그의 딸들은 8도 무당의 시조가 됐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인지 반야봉 주변에 안개와 구름이 자주 끼는데 하늘이 저승에서나마 반야와 마고할미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한다.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반야봉

반야봉의 애뜻한 전설과 장엄한 낙조의 경관을 찾아 나서는 길은 여러 갈래이지만 대개 종주 중에 잠시 들르는 방식을 택한다. 주능선상의 노루목 또는 삼도봉에서 오를 수 있는데 모두 2km 거리에 해당된다. 종주산행을 하면서 반야봉은 어쩌면 선택사양 품목과도 같다. 종주등반 과정에서 반야봉을 생략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곳에 오를 경우 1시간이라는 시간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리산의 진면목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야봉은 반드시 올라야 한다. 반야봉을 오르지 않고는 지리산의 참된 모습을 보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야봉정상에 올라 탁 트인 사방의 전경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때는 신선이 된 느낌을 이라고 표현들을 하기도 한다. 5월이면 두 봉우리는 화려한 철쭉의 향연이 베풀고 그리고 자연경관과 운무와 뒤섞여 있을 때면 탄성이 절로 나오는 곳이 반야봉이다. 반야봉 오르는 길은 주능선을 따라 거치는 것 외에 연곡사에서 피아골을 따라 오른 뒤 피아골 산장에서 주능선으로 올라 오르는 길이 손에 꼽힌다.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삼도봉

삼도봉(1,550m)은 경남, 전북, 전남 3도의 경계를 이루는 봉우리로 삼도봉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봉우리 정상 부분의 바위가 낮의 날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해 낮날봉으로 불렸다 한다. 낮날이란 표현의 발음이 어려운 탓에 낮날봉, 날라리봉 또는 날리리봉 등으로 불리었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정표를 세우면서 삼도봉이라 부르게 되었다. 삼도봉에서는 불무장등 능선과 피아골이 내려다보이고 건너편에 토끼봉이 복스럽게 걸려 있다. 정상에는 삼도의 방향을 가르키는 위치표지가 서 있다.

삼도봉은 주능선의 서쪽면에 위치해 있으나 주능선을 조망하기에는 아주 훌륭한 망루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반야봉을 지척에서 음미할 수 있으며 멀리 천왕봉의 선경과 천왕봉에서 연하봉, 촛대봉을 잇는 천하제일경의 파노라마가 눈앞에 선하고 남부능선의 웅장함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임걸령과 노고단이 손에 잡힐 듯하다.



삼도봉 표지



삼도봉 운해

삼도봉은 지리산종주를 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봉우리이기도 하다. 삼도봉은 화개재에서 2km의 짧은 거리다. 또한 반야봉까지도 2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노고단까지는 8.5km 남짓한 거리로 삼도봉은 종주능선상의 요충지이다. 더욱이 반야봉 등산에 앞서 삼도봉과 반야봉, 그리고 삼도봉에서 노고단 쪽으로 2km 남짓한 곳에 위치한 노루목 등 세 지점은 삼각형의 등산로를 연결하고 있다.

종주 시 지리산 제2봉우리 반야봉을 '오르느냐' 마느냐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부분 장거리 산행에서의 산행 부담으로 반야봉을 생략하는 문제가 논쟁거리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는 반야봉을 오를 경우 4km의 산행을 추가해야 하는 반면 오르지 않고 삼도봉에서 노루목으로 곧장 향하면 그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오르지 않으면 반야봉의 절경을 느낄 수 없다.

삼도봉은 산세는 섬진강으로 뻗어 내리는 불무장등 능선의 시발점이며 그 지명에 걸맞게 경남과 전남을 구분 지으며 섬진강까지 이어지는 삼도봉과 불무장등 능선은 삼도봉에서 해발 1,446m의 불무장대, 해발 942m의 황장산을 지나 촛대봉에서 잠시 솟았다가 화개장터 부근의 산자락을 끝으로 섬진강으로 잠긴다. 19번 국도를 가다보면 화개장터에서 피아골 입구 못 미쳐 있는 검문소 부근이 바로 경남과 전남의 경계지점이다.

삼도봉에서 시작되는 불무장등 능선은 경남 쪽으로는 연동골과 화개골을 빚어내고 있으며 전남 쪽으로는 피아골을 만들어내 모두 섬진강에서 하나가 된다. 삼도봉 가는 길은 주능선을 따라 거치는 것 외에 연곡사에서 피아골을 따라 오른 뒤 피아골 산장에서 주능선으로 올라 오르는 길이 손에 꼽힌다.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삼신봉

삼신봉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청학동 뒤편에 있는 봉우리를 떠올리지만, 종주능선상의 있는 삼신봉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촛대봉에서 천왕봉쪽으로 바로 바라다 보이는 봉우리가 바로 삼신봉이다.



삼신봉표지석



삼성궁

지리산국립공원탐방안내서\_지리산관리사무소장 송인순\_2003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세걸산

세걸산(1200m)은 만복대에서 고리봉과 바래봉으로 이어지는 중간쯤에 위치하여 지리산 능선의 봉우리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그렇게 이름난 봉우리는 아니지만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둘째 가르면 서러워할 정도로 빼어나다. 특히 이곳의 억새는 그 어느 곳 보다 장엄하고 아름답다. 천왕봉과 거리가 멀어 오히려 한적하고 조용하게 탐방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자연을 벗 삼아 산행을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세걸산 철쭉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씨리봉

화엄사에서 출발하여 노고단, 반야봉, 천왕봉을 거쳐 대원사계곡으로 이어지는 탐방로를 보통 지리산 종주코스라 한다. 노고단에서 천왕봉에 이르기까지 산봉을 오르내리며 자연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산행길이 지리산 종주코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 하는 산행코스 중 하나이기도 하며, 한번 와본 사람은 꼭 다시 오고 싶어 하는 여행이 지리산 종주산행이다.

대부분 노고단에서 시작하는 지리산 종주는 천왕봉을 기점으로 해서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백무동이나 중산리 방향으로 하산한다. 그렇지만 지리산 종주의 끝 맛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씨리봉, 치발목을 통해 대원사 계곡으로 향하는 코스를 택한다. 종주산행의 마지막 백미가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씨리봉은 연속해서 연결된 봉우리의 모양이 멀리서 보면 눈을 갈 때 사용하는 씨래와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다 한다. 씨리봉에서는 황금능선의 단풍과 천왕봉, 중봉, 하봉이 연출해내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씨리봉이정표



씨리봉설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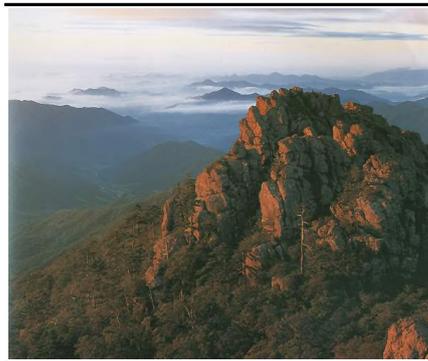
지리산국립공원탐방안내서\_지리산관리사무소장 송인순\_2003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연화봉

삼신봉을 지나 걷기 좋고 야생화가 만발한 능선부 지나면 마치 바위 모양이 연꽃을 닮은 봉우리가 나온다. 지리10경중 연화선경(蓮花仙境)이 바로 이곳 연화봉이다. 기암이 솟구쳐있고 싱그러운 온갖 야생화들이 화려하게 피어있는 선경을 만날 수 있다.



연화봉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영신봉

영신봉은 세석평전의 서쪽 봉우리로 세석평전방향으로는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고 있으니 반대편 대성계곡 방향으로는 암반으로 형성된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영신봉은 한문 명칭에서도 보듯이 아주 신령스러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영신사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위해 머물던 곳으로 수년전까지도 움막을 짓고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영신봉의 진면목 중 하나는 낙조이다. 지리십경에서는 반야봉에서 바라보는 낙조를 최고로 치나 영신봉에서 볼 수 있는 낙조 또한 반야낙조에 비해 손색이 없다.



영신봉이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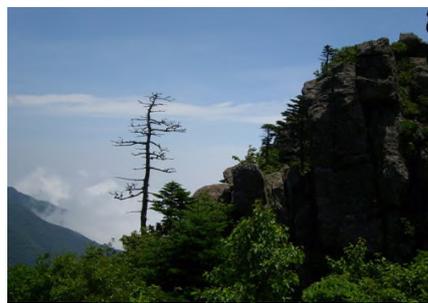
영신봉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일출봉

일출봉! 연화봉을 넘어서 평탄한 길을 조금 가면 오른쪽으로 바위 능선이 뻗어나간 일출봉을 만나게 도니다. 일출봉은 탐방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멀리서 바라봐야만 한다. 일출봉은 천왕봉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천왕일출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여명의 일출봉은 더욱 운치가 있다.



일출봉



일출봉 일출

해발 1172m인 정령치는 서산대사의 '황령암기'에 의하면 마한의 왕이 진한과 변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정장군(鄭將軍)을 이곳에 파견하여 지키게 하였다는데 정장군의 성을 따서 정령치라 불려 오고 있으며, 지금도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멀리 운봉평야가 내려다 보이고, 꾸불꾸불한 정령치간 도로도 확연하게 드러다 보인다.



장터목에서 천왕봉 방향으로 급경사를 오르면 구상나무 숲이 사라지고 고사목과 초원지대가 나타나는데 이곳이 아픈 상처를 간직한 제석봉이다.

제석봉의 고사목(枯死木)지대는 6.25이후에도 아름답리나무가 울창하였다고 하난. 그런데 자유당 말기 제석봉(해발 1808m) 제석단에 제재소를 차려놓고 거목들을 베어내면서부터 수난을 당하기 시작했고, 도벌 사건이 여론화되고 말썽이 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질러 나머지 나무들마저 지금과 같이 고사목이 되었다고 한다.

풀과 나무가 불에 타버린 제석봉은 사람의 발길에 의해 파헤쳐지고, 비가 오면 물을 머금지 못하고 토사가 침식되었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제석봉일원에 어지럽게 얽혀 있는 탐방로를 정비하였고, 식생복원공사와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여 제석봉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제석봉 운해



제석봉 상고대

해발 1915m 지리산의 여러 산봉우리와 능선을 거느리고 정점에 **천왕봉**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있는 천왕봉은 한라산(1950m)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다.

운무(雲霧)에 휩싸여 억겁의 세월을 보내온 천왕봉 정상에는 1.5m 높이의 표지석이 서 있는데 앞면에는 “智異山 天王峰 1915m” 뒷면에 “韓國人의 氣象 여기서 發源되다”란 문구가 새겨져 있다.

우리민족의 기상이 발원한 천왕봉에 서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이 느껴질 것이다. 이 때문에 사시사철 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탐방객이 천왕봉 정상을 오르기 위해 지리산을 찾아온다.

우리민족의 기상이 발원한 천왕봉에서 맞이하는 해돋이는 지리산의 빼어난 경관을 일컫는 지리 10경중 제 1경으로 3대에 걸쳐 덕을 쌓은 자만이 볼 수 있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보기가 어렵다. 자연의 신비함과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경관자원으로 매일 여명시간이 다가오면 천왕봉은 일출을 보기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탐방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예로부터 천왕봉의 거대한 바위는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란 의미로 불렀는지 천왕봉 서쪽 암벽(장터목방향)에 “천주(天柱)”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천왕봉

남명 조식선생은 일찍이 “만고천왕봉(萬古天王峰) 천명유불명(天鳴猶不鳴)”이라며 “하늘이 울어도 아니 우는 뉘”라하여 지리산의 장엄함을 찬탄했다. 반야봉과 노고단 등 우뚝 솟은 준봉(峻峰)을 거느리고 그 아래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크고 작은 봉우리의 호위를 받으며 그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산청군 시천면과 함양군 마천면이 경계를 이루는 천왕봉은 함양방면으로 칠선계곡 물줄기의 발원지가 되며 산청 쪽으로는 통신골, 마야계곡을 만들어내어 중산리계곡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천왕봉에서 발원한 물줄기들은 남강을 거쳐 낙동강으로 흐르면서 경남인들의 젖줄이 된다.



천왕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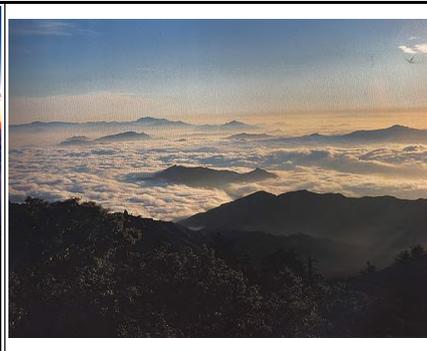
천왕봉의 사람들

지리산의 수많은 봉우리들 중에서 두 번째 높은 봉우리(1875m)가 바로 천왕봉과 마주하며 서 있는 중봉이다.

중봉은 천왕봉과 마주보고 있는 봉우리로 과거에는 천왕봉을 상봉이라 하여 상봉, 중봉, 하봉 순으로 봉우리를 불렀다고 한다. 중봉은 천왕봉과 견주어 뒤지지 않는 경관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천왕봉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다. 중봉은 천왕봉을 사진에 담기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다. 중봉은 동쪽으로 뺨어내려 하봉(下峰)으로 이어지는 능선과 썩리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형성한다.



중봉云海



중봉云海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쫓대봉

쫓대봉은 봉우리의 모양이 마치 쫓농이 흘러내린 듯 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다.

세석평전의 동쪽(천왕봉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쫓대봉은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 등의 봉우리와 한신계곡과 도장골 등의 주변계곡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세석대피소에서 머무른 이들은 쫓대봉에서 천왕봉을 배경으로 떠오르는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쫓대봉에서 올라서서 넓고 평평한 지형을 가진 세석평전을 바라보면 세석에 평전(平田)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있다.



쫓대봉이정표



쫓대봉

봉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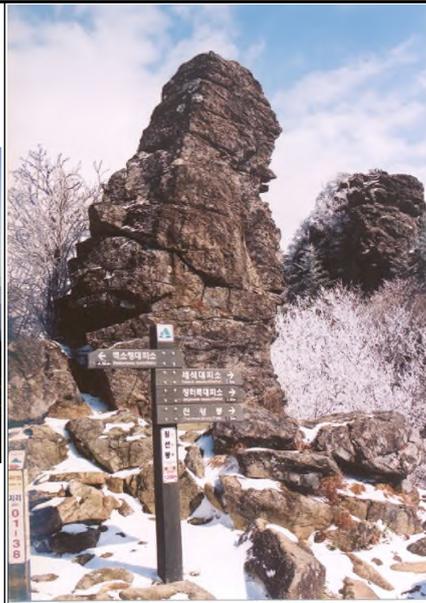
지리산  
국립  
공원

칠선봉

칠선봉은 선비샘을 지나 남쪽으로 대성골과 북쪽으로 한신계곡이 내려다보이는 지점에 위치한 봉우리로 7개의 암봉이 높은 능선 위에 자리잡고 있어 마치 일곱선녀가 한자리에 모여서 노는 것 같다 하여 이름이 붙었다.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능선에 구름이 스쳐 지나가면 더욱 운치가 있다.



칠선봉에서 본 연봉



칠선봉 이정표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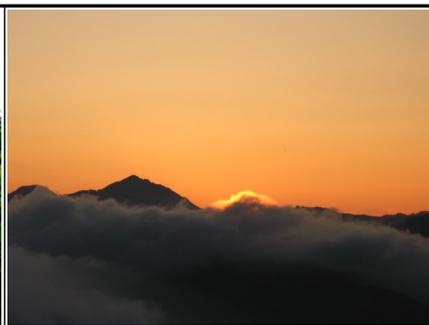
토끼봉

토끼봉이란 명칭은 주변에 토끼가 많다거나 봉우리가 토끼 모양이라서 붙은 이름이 아니고, 반야봉을 기점으로 동쪽, 즉 24방위 중 정동(正東)에 해당되는 묘방(卯方)이라 해서 토끼봉(卯峰)으로 부르는 것이다.

토끼봉에서 반야봉쪽으로 내려서면 화개재가 있다. 화개재는 옛 하동(범왕 연동골)과 남원(백사골)의 물물교역 통로의 중간지점으로 많은 이들의 이동이 있었던 곳이다. 또한 지리산 종주능선의 초입부분으로 많은 사람이 머물렀던 곳이다. 현재는 물물교환을 위해 화개재를 넘나드는 이는 없지만, 과거 수년전까지 무분별한 야영으로 나지가 확산되는 등 훼손이 있어왔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식생복구공법으로 화개재의 식생을 복구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보호를 위해 토끼봉이나 화개재에서 범왕으로 향하는 구간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토끼봉이정표



토끼봉에서 본 천왕봉 일출

봉우리

지리산  
국립  
공원

형제봉

연하천 대피소에서 벽소령으로 향하는 길목에 거쳐야 되는 봉우리가 형제봉이다. 형제봉은 정상부에 큰 바위두개가 나란히 서있는데 그 모습이 두형제의 모습과 흡사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가을철 형제봉의 기암괴석과 주변 신갈나무, 시달나무 등의 단풍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형제봉 능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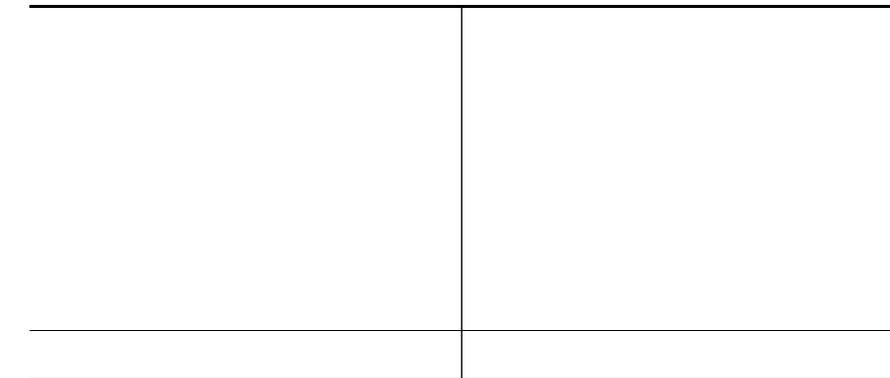


형제봉

‘햇별이 드는 곳이 양수, 그늘진 곳이 음수’라고 하며 두 줄기의 물은 음양 화합의 의미처럼 한 군데로 합쳐진다. 음양수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여인의 산신령께 기도를 하고 샘물을 마시면 아들, 딸을 갖을 수 있다는 신앙의 샘으로 이곳에는 자녀를 갖지 못한 부부의 슬픈 전설이 담겨져 있다.

『아득한 옛날 지리산에 제일 먼저 들어온 호야라는 남자와 연진이란 이름의 여자가 대성계곡에 자리를 잡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산열매를 따러 간 사이 꿈이 연진에게 세석평전의 음양수 샘물을 마시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이 말을 들은 연진은 곧장 음양수로 달려가 기도를 하고 샘물을 실컷 마셨다. 그러나 꿈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호랑이가 이야기를 엿듣고 이 사실을 지리산 산신령께 고해 바쳤다. 그 후 지리산 산신령은 크게 노하여 음양수의 신비를 인간에게 발설한 꿈을 토굴 속에 가두고 음양수 샘물을 훔쳐 마신 연진에게는 그 죄에 대한 벌로 평생을 잔돌 평원에서 철쭉꽃을 가꾸도록 하였다고 한다.

연진은 슬픔에 젖어 흘러내리는 눈물과 닮아 터진 다섯 손가락에서 흘러내리는 피르 꽃밭에 뿌리며 애처롭게 언제까지나 꽃밭을 가꾸었다. 철쭉은 연진의 고통이 더하면 더할수록 무럭무럭 자라 해마다 곱디고운 꽃봉오리를 피웠고, 그래서 세석의 철쭉은 꽃을 가꾸던 연진 여인의 애처로운 모습을 닮아 아름다우며, 꽃잎마다 연진 여인의 슬픈 뉘이 서려 애련하게 피었다가 진다고 한다.



샘터

지리산  
국립  
공원  
임결령

노고단에서 천왕봉 방향으로 종주를 시작하여 처음으로 만나는 샘이 임결령 샘이다. 지리산 종 주능선 상에서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람이 쉬어간다. 따라서 샘터를 중심으로 대부분 대피소가 위치해 있지만 임결령 샘과 선비 샘은 대피소가 없는 곳에서 탐방객을 반기는 샘터이다. 따라서 관리자들과의 눈을 피해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고 야영이 성행하는 등 훼손과 오염이 발생되기도 했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을 반기고 있다. 임결령은 옛날에 의적이나 도적들의 은거지였던 곳으로 유명하며 특히 의적 임결의 본거지였다 하여 임결령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나, 샘터에서 피아골 쪽 암벽 밑에 막 터가 있는 데 이곳을 '황호랑이 막터'라고 부른다. 옛날에 약초를 캐는 황장사가 눈 내리는 겨울밤 이곳에서 천막을 치고 자다가 호랑이를 잡았다는 전설이 있다. 임결령에서 반야봉을 향해 가파른 능선을 한동안 오르다 보면 평지가 나오고 다시 오르막길을 오르면 약2km지점에 노루목 삼거리가 나온다. 노루목은 반야봉에서 내려지르는 산줄기가 산중턱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마치 노루가 머리를 치켜들고 피아골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큰 바위가 전망대를 이루고 있어 부르게 된 이름이다.



음양수



음양수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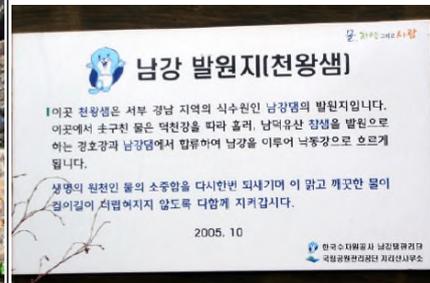
지리산국립공원탐방안내서\_지리산관리사무소장 송인순\_2003

천왕봉에서 로타리 대피소 방향으로 하산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천왕샘**서 가장 높은 곳의 샘인 천왕 샘을 만날 수 있다. 천왕봉(1,915m)에서 약 300m 아래 위치한 거대한 암벽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여 만들어진 웅달샘을 천왕 샘이라 한다. 바위틈에서 흘러나오는 천왕 샘의 시원한 암반 수는 탐방객들의 갈증을 한꺼번에 해소해 주기에 충분하다.

풀과 나무조차 제대로 자라기 힘든 바위틈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천왕 샘은 자연이 오염함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해주고 있는 곳이다.



천왕샘



천왕샘 이정표

벽소령대피소에서 세석대피소로 향하는 길목인 덕평봉 남쪽 상덕평 능선해발 1,491m에 있는 샘터를 선비샘이라 한다. 선비샘일원은 과거 야영이 가능했던 시절 많은 야영객으로 불야성을 이루던 곳이다. 평평한 지형과 풍부한 샘물이 있는 이곳은 노고단에서부터 걸어온 탐방객이 피곤한 몸을 텐트 속에 맡기고 하루 밤을 쉬어가기에 적합한 장소였던 곳이다. 지정장소(대피소, 야영장)외에 취사 야영이 금지된 지금은 야영을 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혹독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샘터  
지리산  
국립  
공원  
선비샘

선비샘 샘터 위에는 초라한 고분이 하나 외로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무덤과 샘에 얽힌 한 화전민의 서글픈 사연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연민의 정과 쓴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선비샘이정표



선비샘

『예날 덕평골 아랫마을에 이씨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노인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화전민의 자손으로서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가난에 쪼들리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 박복한 사람이었다. 그러다보니 배우지 못하여 무식한 데다 인상마저 못 생겨서 그 인풍이 몹시 초라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으며 살아야 했다. 그러나 노인은 평생에 한번이라도 사람들에게 선비 대접을 받아 보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늙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형제에게 유언을 하였다. 자신이 죽거든 그 시체를 상거평 샘터위에 묻어 달라고 부탁했다. 효성스런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해를 샘터위에 매장했다. 그로부터 매년 지리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이곳을 지날 때는 꼭 샘터에서 물을 마시게 되고 물을 마실 때면 반드시 노인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어 노인은 생전에 한이 되었던 선비 대접을 무덤속에서 받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으리라. 후일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의 불우했던 생전을 위로해 주기 위한 소박한 인정으로 이 샘을 선비샘이라 부르게 된 것이라고 전해진다.』

센터

지리산  
국립  
공원

참샘

지리산에는 참샘이 있다. “참”이란 진짜, 먹을 수 있는 등의 의미가 있는 접두사이다. 백무동에서 2.4km 1시간 정도 산을 오른 후 목이 타기 시작할 때 쯤 나타나는 샘이 참샘이다. 이곳에서 마시는 샘물은 “참”이라는 접두어가 딱 어울리는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백무동에서 출발하여 장터목을 오르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반드시 물을 채워가야 한다. 장터목까지는 물이 없기 때문이다.

지리산에는 하동 바위코스의 참샘 이외에도 참샘이 또 있다. 거림에서 세석간 구간의 참샘과 지금은 통제되어 갈수 없는 토끼봉~범왕구간의 참샘이 있다. 거림 코스 참샘은 샘이라기 보다는 지표수에 가깝지만 겨울철 두껍게 얼음이 얼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연중 시원한 물을 얻을 수 있다.



참샘이정표



참샘

대피소

지리산  
국립  
공원

노고단  
대피소

— 노고단 대피소

과거 1960년대에는 노고단 산장 또는 노고단 등산인 휴게소로 단층의 건물이 있었고, 개인이 운영하였다고 한다.

80년대까지 탐방객의 산행은 대부분 등산로 상에 대피소 시설이 미비하여 숙박 및 취사장비 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형태였다.

대피소로 이용되었던 시설물은 규모가 작고 시설이 낡아 기상 급변 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등 그 기능이 매우 미흡하였다. 또한 성수기에는 대피소 인근에서 취사 및 야영을 함으로써 대피소 주변 자연훼손이 확산되고 오염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80년대 후반 산행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탐방객의 급증으로 인해 등산로 및 산정상의 훼손이 점차 확산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전국 공원 중 지형 및 산행 특성상 대피 또는 휴게시설이 꼭 필요한 곳에 대피소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노고단 일대에 노고단 제1대피소를 준공하고 1988년도에 개관하였다.



1965년 노고단 대피소



1980년대 노고단 대피소

대피소

지리산  
국립  
공원  
노고단  
대피소

노고단 대피소	표고 (m)	건축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부대시설
노고단1 대피소	1,422	250	396	280	대피실, 매점, 취사장
노고단2 대피소	1,422	184	315	70	대피실, 매점, 취사장

노고단 제1대피소는 지상3층의 현대식 시설로 신축한 대피소이었고, 노고단 제2대피소는 1994년도에 준공되었고, 지상2층의 건물로 반야봉, 천왕봉 등 원룸의 형태를 갖추었고 사전예약(전화)을 한 사람만이 이용 가능하였다. 하지만 제2대피소는 시설물의 노후화, 시설물의 유지, 보수의 적자와 이용객의 감소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2007년도에 철거 되었다. 부지는 탐방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조성되어 있다.



구) 노고단 제1대피소



현) 노고단 대피소



구) 노고단 제2대피소



현) 노고단 제2대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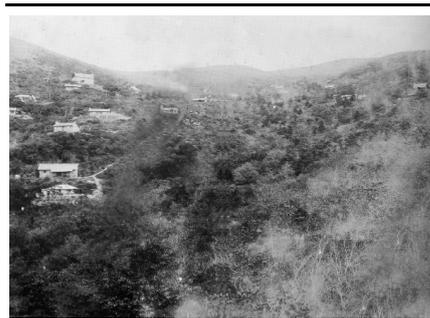
대피소

지리산  
국립  
공원  
노고단  
대피소

1980년 후반 노고단 대피소 옆에는 야영장을 설치·운영하였다. (1987년도 준공) 수용인원은 1,500명 정도로 500여동의 소형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자연훼손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산속의 야영장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는 복원 중이다. (자연공원법 제27조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금지)

지금의 노고단 대피소는 기존 3층 건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수용인원은 108명이다. 2007년도에 외벽공사 및 내부 시설물 정비로 인해 보다 편하고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대피소로 운영되고 있다. 대피소에는 매점과 대피실(반야봉-2층, 노고단-1층)과 노고할매 탐방안내소(1층)가 갖추어져 있다.

노고할매 탐방안내소는 지리산 국립공원의 전반적인 내용과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과 영상물 상영 및 노고단의 유래와 뜻에 관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각가지 산행정보에 관한 책자와 시집이 비치되어 잠시나마 책을 통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30년대 노고단



노고단정상 옛모습

대피소

지리산  
국립  
공원

노고탄  
대피소

대피실은 2층의 구조로 나무로 제작된 바닥과 밤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전기히터가 설치되어 있고 대피소에서 숙식 시 담요(1장-1000원)를 대여 할 수 있다.

대피소 1층에 위치하여 탐방객들의 편의제공을 하고 있는 매점에는 아래와 같은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매점 판매물품 : 음료, 스낵류, 햇반, 통조림(참치,깻잎), 화장지, 부탄가스, 건전지, 등산용 지도, 봉지라면 등을 판매  
(컵라면과 아이스크림은 판매 하지 않는다.)

대피소 맞은편에는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고, 대피소 좌측에는 '밥 짓고 나눠 먹는 곳'이라는 이름의 취사장이 위치하고 있다.



노고탄에서 바라본 섬진강



노고탄 대피소 취사장

그리고 대피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대피소 이용방법 : 인터넷 사전 예약 및 결제 완료
- 인터넷 예약 방법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http://www.knps.or.kr)) 접속 ☞

좌측란 '자연is/탐방정보' 클릭 ☞

상단 아이콘 중 '예약서비스' ☞ '예약신청' 클릭 ☞

'대피소' 클릭 ☞ 지도에 표시된 대피소 중 예약 하고 싶은

대피소를 선택 ☞ 회원 로그인 (비회원일 시 회원가입 필수)

☞ 원하는 날짜를 선택(예약 인원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하면

예약이 완료 된다.

※ 예약 후 12시간내에 결제를 완료 하셔야 하며 미결제시 자동 취소가 됩니다.

· 사용료 : 성수기 : 8,000원 / 비수기 : 7,000원

· 시설 사용료 차등화

성수기 : 4~5월, 7~8월, 10~11월

비성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국립공원 홈페이지

국립공원 30년사 1998.

- 세석대피소

세석평전은 작은 돌, 세석이 지천으로 널려있다 해서 잔돌평전, 세석평전, 세석고원 등으로 불리 운다. 아고산대에 위치한 세석평전은 철쭉꽃, 털 진달래 등 키작은 나무들과 동의나물, 산오이풀, 원추리 일월비비추 등 다양한 야생화가 바람과 추위를 견디며 자연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높은 생태적가치와 희귀성, 뛰어난 조망성 등의 자연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어 지상의 낙원이라고도 불리우는 곳이다.

대피소  
지리산  
국립  
공원  
세석  
대피소



1972년 세석산장



세석 대피소

세석평전은 지리산 종주를 위한 주능선 탐방로의 중심에 있으며, 거림, 백무동, 청학동, 의신(대성) 등 여러 지역과 연결되는 지리산 탐방의 중심지역으로 오래전부터 많은 탐방객들이 집중되는 곳이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에 맞추어 지리산의 대표적인 탐방객 편의시설인 세석대피소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의 대피소 이전에는 1983년 60명 수용 규모로 만든 대피소가 있었으나, 늘어나는 탐방객을 수용하지 못해 세석평전일원에서 무분별하게 야영이 성행하게 되었고 세석일원은 급속히 훼손되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1995년 23억원을 투입하여 220명 수용 규모의 대피소를 구대피소(현재 취사장) 옆에 신축하고, 야영 및 취사금지 조치, 야영으로 훼손된 지역은 복구공사를 실시하는 등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훼손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세석대피소는 산행에 지친 몸을 쉬어가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산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조난자 구조 등 지리산의 고산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전초기지로 장터목대피소와 벽소령대피소 등 지리산 고산지를 관장하는 상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직원이 직접 진행하는 슬라이드 상영을 통해 산행 시 지켜야할 예절과 주의사항, 지리산의 생태계, 경관문화자원 등을 설명하는 슬라이드 상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세석대피소를 비롯해 지리산국립공원의 대피소 이용은 한달전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a.or.kr](http://www.npa.or.kr))을 통해 예약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세석평전은 신라시대에는 화랑도의 수련장으로 이용돼 호연지기를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장이었으며 조선말기에는 동학농민들의 전장이었다고 한다. 또한 일제 당시는 징용과 징병을 거부하며 산으로 들어온 이들의 안식처였으며 6·25를 전후해서는 빨치산의 근거지가 된 역사의 현장,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세석평전 일원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식생훼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15년 보고된 지리산식물조사보고서와 1934년 출간된 규슈제국대학 농학부부속연습림의 남서연습림식물조사에서도 이 지역은 넓은 초원지대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 기록을 토대로 추측해보면 세석평전은 산불 등 인간의 인위적인 교란으로 식생이 심하게 훼손되었다가 교란의 정도가 서서히 약해지면서 100여년 전부터 서서히 초본류가 자리를 잡았고, 이후 철쭉꽃과 진달래, 붉은꽃병꽃나무 등 관목류가 주요 식생을 이루었다. 그리고 최근들어 구상나무와 가뭇비나무, 잣나무 등의 상록 침엽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피소

지리산  
국립  
공원

세석  
대피소

세석평전은 해발 1,450m~1,650m 사이에 위치한 광활한 아고산 식생대를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동쪽으로 촛대봉, 서쪽으로 영신봉에 의해 위요되어 있으며, 양쪽 봉우리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 완만한 사면부에는 아름답고 희귀한 야생화를 비롯해 철쭉꽃, 진달래, 병꽃나무 등 키작은 나무와 쯤고채목,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등이 어우러져 독특한 식생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세석평전에는 5월말에서 6월초에 개화하는 철쭉꽃이 만발하면 장관을 이루는 데 1972년부터 매년 진주 산악회 주체로 철쭉제를 세석에서 개최하였으나,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혼잡을 이루고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로 세석평전일원이 심하게 훼손되어 1994년부터 행사가 중단되었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복원공사를 한 후 현재는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여 보호하고 있다.



세석 대피소



세석 대피소

- 장터목 대피소

장터목은 시천주민과 마천주민들이 물건을 사고팔던 장터가 열리던 곳이라 해서 장터목이라 하였다. 해발1,750m 고산의 지리산 주 능선에 물물교환의 장터가 섰다는 것은 지리산에 기대고 삶을 영위했던 옛사람들의 강렬한 생의 의지를 엿보게 해준다. 장터목은 동서남북 방향으로 탐방로가 연결되어 있어 천왕봉을 오르려는 사람들의 전초기지로 역할을 하는 곳으로 항상 많은 탐방객들로 붐비는 곳이다.



장터목 대피소



장터목 대피소

장터목대피소는 1971년 9월에 처음 세워질 때 지리산장이라는 이름으로 33㎡, 40명이 잘 수 있는 반 지하식 콘크리트 건물이었으나, 폭증하는 탐방객을 수용하기 위해 1986년 9월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82㎡규모로 증축하였다. 그러나 취사 및 야영금지로 대피소 이용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1997년 11월 과거 대피소를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재의 장터목대피소를 증축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다. 장터목대피소 주변은 과거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로 심하게 훼손되었으나, 현재 식생복원공사 및 자연 휴식년제를 통해 아픈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다. 장터목대피소는 고산지 능선부에 위치하고 있어 물 사정이 좋지 않은 곳이다.

지리산국립공원탐방안내서\_지리산관리사무소장 송인순\_2003

대피소  
지리산  
국립  
공원  
치발목  
대피소

- 치발목 대피소  
해발 1,425m, 잘 보전된 신갈나무 숲 속에 자그마한 쉼터 치발목 대피소가 있다. 치발목은 과거 이곳에 참취, 곰취, 단풍취 등 각종 취나물이 밭을 이룰 정도로 풍부하게 자라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처럼 취나물이 풍부한 곳에 1971년 대피소가 들어섰으니 이름 하여 치발목대피소이다. 지금은 머물러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 지리산 대피소 중 피아골 대피소와 함께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피소이다. 지리산관리사무소에서는 2004년에 노후한 현재 건물을 새단장하여 탐방객들이 대피소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치발목 대피소



치발목 대피소

지금은 숲이 잘 보전되면서 신갈나무 숲이 짙게 우거져 있어 치발목의 명성에 어울릴만한 취나물을 보긴 힘들다. 대원사계곡에서 천왕봉을 오르려는 사람이나, 천왕봉에서 대원사로 산하는 사람은 모두 대원사와 천왕봉의 중간지점에 있는 치발목을 거쳐 간다.

지리산은 계곡이 깊고 주 능선 곳곳에 쉼터가 위치하고 있는 비교적 물이 풍부한 산이나 장터목이나 로타리대피소에서 출발한 사람이 천왕봉을 거쳐 대원사방향으로 하산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천왕봉에서 하산하는 대원사코스는 산행하는 사람들이 안전 및 조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전초기지이자, 험난한 탐방코스에 있는 유일한 샘이 있는 곳으로 산행하는 사람들의 쉼터이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금은 산악인 민병태씨가 대피소를 관리하며, 오가는 탐방객을 반갑게 맞이해 준다.

지리산국립공원탐방안내서\_지리산관리사무소장 송인순\_2003

- 로타리 대피소

로타리대피소는 중산리에서 천왕봉으로 오르는 코스의 3분의 2 지점에 위치하여, 탐방객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제공과 조난자, 탈진자 구조 등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로타리대피소는 로타리클럽 회원들의 기금을 모아 1978년에 만든 대피소로 위험에 처한 수많은 탐방객들을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해 왔다.



로타리 대피소



법계사

대피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0년에 로타리클럽에서 환경부에 기부 채납하였고, 이를 국립공원공단에서 개보수하여 2001년 11월부터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다. 중산리에서 천왕봉에 오르는 전초기지로 연중 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으며, 산불방지기간에도 운영하고 있다.

— 연하천대피소

연하천대피소는 1982년에 신축된 대피소를 4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지리산 종주능선상 대피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다.

연하천의 위치는 토끼봉과 명선봉 삼각고지, 벽소령 사이의 능선상 가운데 명선봉 아래에 있다. 해발 1,500m 이상의 고산지인데도 맑고 시원한 계류가 흐르는 남·북·서 3면이 아늑하게 감싸여 있는 숲속의 연하천은 널따란 평지를 이루고 있으나, 물이 풍부해 허기진 배를 채우고 산행에 지친 몸을 쉬어가기에 적당한 곳이다.



연하천 대피소



연하천 대피소

— 벽소령 대피소

벽소령(1,340m)은 지리산의 종주탐방로(노고단~천왕봉, 25.5km)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예로부터 하동군 화개와 함양 마천을 연결하는 주요 이동통로로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어 왔다. 지금은 하동과 함양사람들의 이동보다는 지리산 종주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머물러 가는 곳으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벽소령을 정점으로 하동과 함양을 연결되는 관통도로가 1970년대 초에 군사작전을 위해 만들었으며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구간에 나무들이 자라 길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 차량이 통행할 수 없다.

벽소령은 주요 이동로로서 뿐만 아니라 경관가치도 뛰어나다. 깊은 밤 이곳 벽소령에서 떠오르는 달빛은 밤하늘 주변의 푸른 숲을 더욱 빛나게 하는데 이러한 달빛에 의해 연출되는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이곳이 벽소령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이러한 벽소령의 밤하늘이 지리 10경중의 하나가 되었다.

대피소  
지리산  
국립  
공원  
벽소령  
대피소



벽소령 대피소



벽소령 대피소

이처럼 교통의 요지이자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는 사람이 모여들기 마련이다. 거기에다 썬터까지 갖추고 있으니 산행으로 지친 몸을 쉬어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랄 할 수 있다. 벽소령에는 1996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신축한 140명 수용 규모의 벽소령대피소가 있다. 대피소는 목조건물로 바람의 방향과 지형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좁은 공간에 가능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 탐방객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주능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노고단에서 천왕봉을 향해 아침 일찍 출발한 탐방객 대부분이 하루 밤을 머물고 가는 곳으로 훌륭한 시설과 국립공원 직원들의 친절한 관리도 천왕봉아래의 장터목대피소와 함께 연중 많은 사람들로 불빛나는 곳이다.

대피소

지리산  
국립  
공원

피아골  
대피소

- 피아골 대피소

지리산 대피소 중 유일하게 종주 능선 상에서 벗어나 있는 대피소이다. 1984년 신축한 대피소로 1970년부터 노고단 구대피소를 관리해 오던 함태식씨가 1988년부터 관리해오고 있다.

지리산 피아골하면단풍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피아골은 가을 단풍철이 되면 전국에서 단풍구경을 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단풍은 단풍나무에만 드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단풍은 잎이 지는 모든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기 전에 나타내는 생리현상 중위 하나로 상록수를 제외한 모든 나무는 단풍이 든다. 그런데 같은 지리산에서도 유독 피아골의 단풍이 유명할까?

아마도 피아골계곡 주변과 대피소, 임걸령 구간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졸참나무 때문일 것이다. 지리산 다른 계곡에 비해 피아골에는 졸참나무군락이 넓게 자리 잡고 있으며, 성장상태도 매우 양호하여 다른 참나무류(지리산에는 대부분 신갈나무 임)에 비해 유독 붉고 아름다운 색으로 단풍이 든다. 이 때문에 졸참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피아골이 다른 계곡보다 단풍이 더 아름답게 느껴질 것이다.



피아골 대피소



피아골 대피소

지리산국립공원탐방안내서\_지리산관리사무소장 송인순\_2003